



연간 사상 최대 무역적자 예상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1월 무역수지¹⁾는 9,534억 엔 적자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보이고 있음.

- 11월 일본 수출액은 4조 9,83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.1% 감소하였으며, 수입은 0.8% 증가한 5조 9,373억 엔을 기록함.
 - 이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화력발전용 연료 수입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,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해외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과 중국 등에 대한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임.
 - 올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2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6조 2,808억 엔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1980년 오일 쇼크 영향에 따른 2조 6,129억 엔의 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임.

■ 지역별로는 유럽연합(EU)에 대한 무역적자가 1,264억 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중국에 대해서도 5,475억 엔의 적자로 9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
- 대 유럽연합(EU)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.9% 감소한 5,016억 엔을 기록, 대 중국 수출은 14.5% 감소한 8,587억 엔을 시현하였음.
 - 중국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산업과 자동차관련 부품산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68.6%, 43.5% 감소세를 보였으며, 이는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관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.
- 한편, 12월 무역수지도 이 같은 적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연간 무역적자는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임.

(아사히 外, 12/19)

1) 통관기준의 속보치임.